마당 딸린 아담한 양옥이 있을 법한 자리에 출입문을 기준으로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3층집, 붉은색 벽돌이 튀어나올 듯 한 창을 받치고 있는 집, 틈 사이사이로 철제 계단이 돌출되어 있는 집이 있다면 이것은 대부분 다가구 주택일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긴 집들이 있는 골목길을 찾아다닌다.

나는 골목길의 다가구 주택, 개인 주택에서 사람들의 끝없는 욕망을 읽는다. 이 주택의 대부분은 집장사들이 지어 개인에게 판 집이다. 이들의 건축에는 디자인이라는 것이 없다. 그저 양식이 있고 복제만이 있을 뿐이다.
서울의 주택은 주거의 근대화라는 명목 아래 양옥에서 다가구 주택으로 변화하였다. 당시 양옥은 불란서 주택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그 이후 현재의 주택들은 당시의 불란서 주택, 다가구 주택의 양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개인의 목적과 편의에 의해 트랜스포머처럼 변형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경제적인 이유에서이다.

다가구 주택의 형태는 더 많은 임대인을 수용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개조되었다. 지하층이 지면보다 더 높게 얼굴을 내밀고 있고, 옥상 위 물탱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미 누군가의 거주공간으로 바뀌었다. 베란다는 처마 끝까지 얇은 유리창으로 확장되어 점점 불안하고 기이한 형태의 주택으로 변모했다.
편법과 불법의 교묘한 경계 위에서 새로운 양식의 주택이 지어진 것이다.

이러한 다가구 주택의 모습은 우리가 도시에서 지우고 싶어 하는 가난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 풍경을 보잘 것 없다고 치부해버리고 밀어내기엔 이 주택들이 품고 있는 인상적인 요소가 있다.

서울이라는 공간이 점점 다른 거대도시의 외모를 닮아가고 있지만, 도시 내부의 골목길에 들어서 있는 이 기괴한 건축물들에서 나는 서울스러움을 확인한다.

나는 서울의 다가구 주택을 채집하고 있다. 하지만 나의 작업이 다가구 주택에 대한 분류와 분석,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건축 전문가도, 도시 전문가도 아닌 그저 작가이기 때문이다.
나는 서울의 모습을 나의 사적인 계획과 이론으로 묶어나가고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것뿐이다.